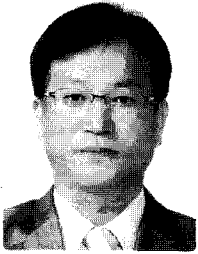


비전을 갖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정비가 이뤄져야



하 영 현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지도사업본부장

▣ 2010년의 낙농산업을 되돌아보면

2010년도는 상반기 강화지역 구제역 여파를 시작으로 하절기 혹독한 기온 상승에 따른 원유량 감소와 더불어 원유등급 하락으로 낙농가들의 급격한 소득감소로 이어졌으며 또한 폐사축의 증가로 목장경영에 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유업계는 원유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제품판매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해 11월 안동지역 구제역 재발생에 따른 확산으로 너무도 고통받는 시기를 접하게 됐다.

▣ 낙농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

낙농가 경영수지 악화

계속되는 배합사료, 조사료 가격 인상 등으로 낙농가의 목장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낙농가들은 낙농경영 의지를 상실하고 있으며 어떠한 계기가 되면 낙농을 접을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고 지금도 낙농가들의 폐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젖소 사육두수의 감소

경영수지 악화에 의한 후보축의 감소로 이번 하절기 혹독한 무더위로 인해 많은 경산우들이 폐사하다보니 대체 후보축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원유생산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이 없으며 후보축을 구입하고자 하지만 구입할 곳이 없는 실정으로 원유 생산량 부족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며 하절기 무더위 기간에는 수정이 되지 않아 젖소의 공태기간이 길어지는 등 후보축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원유생산쿼터를 보유하고도 원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조사료 키퍼 부족에 따른 애로

정부에서는 국내 조사료포를 활용한 조사료 확보를 통해 원가절감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역 여건상 가능한 지역이 있고 어려운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매년 조사료 키퍼가 감소되어 농가에서는 적기에 조사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산 조사료 중 청보리가 많이 재배되고 있지만, 낙농가들은 청보리가 젖소 사료로 적합하지 못하다보니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른 국내산 조사료도 가격 경쟁력이 없어 농가들의 이용이 많지 않으므로 낙농가가 필요로 하는 조사료 키퍼량을 정부에서 100% 풀어주면 좋을 것 같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도래에 따른 경영 애로

정부에서는 사료 가격의 고공인상으로 특별사료구매자금을 농가별로 지원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으나 낙농가들의 평균부채금액이 많아 매월 상환해야 할 이자금액이 커 목장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음에도 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다시 부채를 내서 갚아야 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어 목장경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다.

낙농선진국과의 FTA 체결에 의한 대책 마련 부족에 따른 사기 저하

낙농선진국과의 계속되는 FTA 체결로 인해 낙농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낙농경영의 계속여부를 고심하는 등 장기적으로 낙농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많이들 느끼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부차원의 FTA 대책방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낙농가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낙농가들은 실질적으로 농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FTA 대책방안이 조속히 수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 목장 조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목장 조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HACCP농가, 깨끗한목장, 유기농목장 등 친환경 목장에서 생산한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농가들도 필요성을 느끼지만 당장 투자금이 많이 들다보니 접근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적으로 FTA시대 총체적 위기 속 목장경영 안정의 길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 낙농가들의 목장경영 안정화의 길은 먼저 목장 스스로 시대에 맞는 목장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 안정을 모색해야 하겠으며, 앞서 낙농현장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 낙농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목장경영의 안정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사료가격의 안정화가 가장 우선되어야겠으며 안정적인 사료가격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둘째, 목장경영 개선을 위한 생산성 향상 부분으로 농가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젖소개량 검정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저능력우는 과감히 도태하고 고능력우로의 개량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체세포수의 등급 강화로 도태하는 경산우가 많은데 이는 생산성 저하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체세포수 등급의 완화를 요구하는 농가들의 의견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로 폭염·혹한기에 대비한 젖소의 사양관리 대책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7, 8월에 40℃에 육박하는 기온으로 산유량 감소 및 번식문제로 인한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므로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지하수나 지표수를 이용한 냉각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등 하절기 목장환경에 맞는 무더위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넷째로 정부차원의 낙농 FTA 종합대책 방안의 조속한 마련으로 안정적인 목장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수립되어야 한다. 우선 FTA 체결에 의한 낙농산업의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겠으며, 또한 앞서 열거한 낙농현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농가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은 농가에서 해결토록 노력하고 농가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은 정부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바라면서 우리 낙농산업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후계낙농인들이 비전을 가지고 낙농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목장경영의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

